

“반도체, 1년만 기다려라”… 내년 게임기 교체 큰장 선다

소니, 고용량 SSD 탑재 ‘PS5’ 예고
MS·아마존·구글 고사양 게임 준비
고성능 CPU·GPU 수요 증가 전망
삼성전자 등 반도체 수혜 ‘기대감’

게임업계가 2020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2020년 하반기 경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PS5)’를 출시할 예정이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콘솔 게임기다. 전 시리즈 인 플레이스테이션4가 지난해 말까지 9160만대나 판매됐다. 하드웨어는 AMD 3세대 라이젠 CPU에 라데온 나비 GPU가 탑재될 예정이다. 여기에 고용량 SSD도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형 모델은 성능을 개선한 것뿐 아



구글 스타디오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나라, 이전 세대 게임 지원까지 공식화하면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PS보다 더 큰 이슈도 기다린다. 바로

클라우드를 이용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은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5G 통신이 본격 보급되는 2020년부터 빠르게 상용화될 전망이다.

MS는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올해 중순부터 서비스를 예상하고 있다.

구글도 지난달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디아 론칭을 선언했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고사양 게임을 스트리밍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5G 수준 통신만 갖춰진다면 끊김없는 스트리밍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도 뒤를 따르기로 했다. 2020년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PS와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은 우선 고성능 CPU와 GPU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비싼 인텔보다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AM D 제품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은 대만 TSMC가 가장 큰 수혜자다. AMD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대신 TSMC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를 옮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 삼성전자 EUV 활용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데다가, TSMC가 최근 대규모 불량사태를 일으키는 등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올 가능성도 크다. 최신 게임 용량이 수십GB에 육박하는 만큼, 클라우드 서버 용량도 커져야 하는 상황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웅진코웨이, 초교 실내공기질 개선 앞장

동답초·(주)대상테크롤과 업무제휴

웅진코웨이는 초등학교 교실 공기질 개선에 나섰다.

웅진코웨이는 서울 동대문 서울동답초등학교, (주)대상테크롤과 ‘서울동답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실 내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실내공기질 개선 연구를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웅진코웨이는 동답초등학교 교실에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2년 동안 관리서비스를 한다. 아울러 웅진코웨이만의 혁신적인 기술로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도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동답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연구’ 업무제휴에서 (왼쪽부터) 이선용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장, 최재광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 박영선 대상테크롤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동답초 최재광 교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공기질 개선 노력과 관리는 학생과 선생님의 건강이나 교육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웅진코웨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올해 유니콘기업 육성… BTS만큼 될 것”

〈방탄소년단〉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창립 40주년 비전·새 CI 선포
‘스케일업’ 예산 확대, 130곳 혜택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100년 준비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스마트화를 위해 방탄소년단(BTS)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중진공)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돋고,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기업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전국에 17곳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유니콘기업도 다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얼굴인 CI도 새로 바꿨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18일 경기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립 40주년 비전 및 CI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름부터 체질까지 혁신 기관으로 탈바꿈해 정부의 국정 경제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해 지난해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처음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경기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관의 새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배정한 바 있다. 올해 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0여 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스타트업 육성→스케일업→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미국 시애틀과 중국 베이징(중관춘)에 오는 8월과 10월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의 문을 연다. 향후엔 인도에도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글로벌혁신성장센터는 기존에 중진공이 갖고 있는 해외BI(비즈니스인큐베이터)를 발전시킨 것으로 중진공의 모든 업무가 해외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집약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혁신성장센터(글로벌센터)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혁신, 수출보육,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국에 들어설 글로벌센터는 ICT, 환경에너지, 바이오, 유망신소재 등에 특화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해 중국 시장 공략을 돋기로 했다.

글로벌센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기업들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 이사장은 “기존 5곳이었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곳으로 늘린 것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수한 졸업기업들을 글로벌센터로 불러 양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이날 새 CI ‘KOSME’(이미지)도 선보였다. ‘KOSME’는 Korea Small&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Agency의 약자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대한민국(Korea)의 중소벤처기업(SMEs)을 위한 대표기관임을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께 전달하는 의미를 담았다는게 중진공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흥일표·김규환·이훈·박정 의원과 중진공 전·현직 임직원,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

동화자연마루,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동화기업 목질 바닥재 부문 1위

동화기업은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목질 바닥재 부문에서 1위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고 미국의 10대 브랜드 조사·컨설팅 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와 엠블럼(MBLM)이 공동 인증하는 브랜드 고객충성도는 브랜드 사용 경험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한 뒤 각 부문별로 1위를 선정하고 있다.

동화자연마루는 5가지 항목 중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전환 의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내 7개 주요

목질 바닥재 기업 중 1위에 올랐다. 특히 현재 사용 고객의 타사 브랜드 전환 의사를 평가하는 지표인 전환 의도에서는 2위 바닥재 업체에 비해 1.5배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점수차가 컸다.

동화기업의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는 대한민국 바닥재의 표준을 제시하며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바닥재 브랜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3년간 바닥재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동화자연마루의 누적 바닥재 판매량은 223.1㎢(6750만평)으로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7배에 달하는 규모다.

바닥재 생산 시 100% 국내산 소나무만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경쟁률 3대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진행하고 있는 ‘2019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접수가 끝났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삼성전자는 5년간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500개 기업을 모집하는 이번 접수에는 약 15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3대

1가량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장실사 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계획대로 최종 500개사를 선정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반구축형’ 모델이 도입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 스마트화가 이뤄지고,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원가절감 혁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